

30강. 설명문쓰기

1) 설명문이란?

설명문은 어떤 사실이나 사물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쉽게 풀이해 놓은 글이다. 설명문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하므로 쉬운 말로 풀이하되 글쓴이의 의견이나 주장 같은 주관적인 생각은 쓰지 않아야 한다. 한 마디로 생활문, 일기 등은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이 주가 되지만 설명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설명해 주는 글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대하는 글이다. 어떤 물건을 샀을 경우 그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 약을 샀을 경우 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도 설명문에 속한다. 그런가 하면 절이나 고궁 같은 곳에 가면 안내문을 볼 수 있는데 안내문도 일종의 설명문이다. 설명문의 생명은 읽는 이에게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해하기 쉽도록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낱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표현 방법도 일기나 생활문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나무’ 라는 제목으로 생활문을 쓰면

‘난 나무를 사랑한다. 나무는 우리에게 열매도 주고 그늘도 주고 또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필요한 목재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나를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삶을 닮고 싶다.’

는 식으로 표현한다면, 설명문에서는

‘나무는 식물에 속하고 우리 인간과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가뭄과 홍수를 막아주고 또 인간의 생활에도 편리함을 준다. 우선 우리가 흔하게 쓰는 종이와 책상, 그리고 가구 등도 나무가 있어야 한다. 나무는 이렇게 우리 생활에 중요한 몫을 해 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도 한다.’

는 등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글이며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으로 쓰는 글이다.

다양한 글제로 설명문을 많이 쓰면 사물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이 되고 아는 것이 풍부해진다. 초등학교 1학년은 ‘나’와 ‘우리 가족’ 소개에서 시작하여 학교 가는 길, 시장 가는 길, 우리 반, 우리 학교, 내 친구, 선생님 소개하기 등등을 연습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도 내가 입고 있는 옷, 내 주머니 속, 아니면 내 필통이나 가방 속, 내 방, 장난감, 만화책 등을 설명해 보게 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남에게 알릴 때는 어떻게 조리 있게 써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간단한 현실을 설명하기에서 점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즉 개미, 개구리, 뱀 등에 대한 동물 지식과 내가 좋아하는 수박, 참외 같은 과일에까지 범위를 넓혀서 정리하여 쓰게 함으로써 재밌고 즐거운 글쓰기를 익히게 한다. 아이의 주변에서부터 알고 있는 것을 좀더 깊게 생각하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 식물과 동물의 차이점, 컴퓨터와 인간의 차이점 등을 비교 분석하는 단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그런 글쓰기 훈련을 통해 아는 것이 많아지고 논리적인 글쓰기 연습이 이루어진다.

2) 설명문의 특성

(1) 설명문은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글이다.

설명문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감명을 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야금은 우리나라 고유의 현악기이다. 길이가 165센티미터, 너비가 30.3센티미터의 공명판과 열두 줄로 된 악기인데 판은 대개 오동나무로 만든다. 이것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왼손의 손가락으로 줄의 기러기발 바깥쪽 부분을 눌렀다 놓았다 하며 오른손의 엄지, 검지, 중지의 세 손가락으로 줄의 머리를 통기면서 탄다.

지금부터 1400여 년 전 음악을 사랑하던 가야국의 가실왕이 당나라에서 들어온 악기(쟁)를 보고 ‘우리 고유의 악기가 하나 있어야겠다.’하는 생각이 들어 중국의 25현의 금(琴)을 개조하여 12현의 악기로 만든 것이 가야금이다. 이 악기를 만들어 놓았을 때 음악가 우륵으로 하여금 가야금에 적당한 12악곡을 짓도록 하였다.

가야금의 종류로는 정조를 위한 풍류 가야금과 속곡(俗曲)을 위한 산조가야금의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음역이 넓고 소리가 아름다우며 악상이 정확하여 우리 민족성이 잘 드러난 정서적인 악기로 거문고와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다.

옛날에 가야금은 일반 국민이 어렵게 여겨 오던 악기였는데 요즈음에 와서 우리 것 찾기에 관심이 놓아진 청소년층과 어린이들까지 즐겨 배우는 악기로 손꼽히고 있다.

(2)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

설명문은 문학적인 맛을 살려 문장을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없다. 정확한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면 훌륭한 설명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장의 끝 부분을 추측이나 불확실한 말로 마무리지어서는 안 된다. ‘~일 것이다. ~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한다.’ 따위의 불확실한 말 대신에 ‘~이다. ~하다. ~이 있다.’ 등과 같이 명쾌하게 끝나야 한다.

정확한 내용의 설명문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고서를 들춰보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내용이 충실한 설명문을 쓸 수 있다.

(3) 글의 짜임이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설명문의 짜임은 처음, 가운데, 끝맺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처음 부분에서는 설명할 문제나 사실, 설명 방법 등을 밝히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끝맺음 부분에서는 가운데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마무리한다. 설명문에서의 문단과 문단은 연결 관계가 서로 긴밀해야 한다. 그리고 설명하는 내용이 바뀔 때마다 문단을 나누어야 한다. 글은 내용에 따라 문단이 나뉘어지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밀접한 연결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설명문 쓰기의 실제

(1) 글감 정하기

설명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모두 동원하여 남에게 알리는 글이다. 이 때 이미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정확하고 확실할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료를 조사해서 쓰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뚜렷해야 한다. . ‘행복이란’ 글감과 ‘소’ 라는 글감을 예로 들어볼 때 행복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소는 크기, 생김새, 색깔, 특성 등에 대하여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설명문의 글감을 고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①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친숙한 것 중에서 고른다.

- ② 전혀 생소한 것보다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고른다.
- ③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것 중에서 고른다.

(2) 자료 조사하기

설명문을 쓸 때 상식적인 내용만을 써서는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 독자들에게 정확한 지식과 깊은 이해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돼지에 대해 설명문을 쓴다고 할 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충실한 설명문을 쓰기가 어렵다. 즉 아래 예와 같이 평범한 자료만을 가지고는 좋은 설명문을 쓰기가 곤란하다.

《돼지의 생김새》
 돼지는 몸이 둥글고 뚱뚱하며 다리가 짧다. 눈은 작고, 뾰족한 입 위에 콧구멍이 두 개 뚫려 있다. 몸이 굵고 꼬리는 짧다.

내용이 정확한 설명문을 쓰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글은 자료 조사가 부족하다.

《보기》
 《사과》
 ① 모양 : 둥글다. ② 크기 : 주먹만하다.
 ③ 색깔 : 빨강, 노랑, 파랑 ④ 맛 : 달다, 신맛도 있다.

《사과》
 사과는 모양이 둥글고 크기가 주먹만하거나 그보다 좀 큰 과일이다. 색깔이 빨간 것, 파란 것, 노란 것 등이 있다. 종류에 따라 맛이 다르지만 대체로 달고 신맛이 난다.

이와 같이 글을 쓰기 전에 조사를 하고 틀을 짜서 쓰면 좋은 설명문이 된다.

(3) 개요 짜기

어떤 글이든 줄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글의 줄거리를 엮어 짜는 것을 개요라고 한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 설계가 있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듯이 글도 개요를 잘 짜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설명문을 쓰기 전에는 먼저 처음 부분과 가운데 부분, 끝 부분에 어떤 내용을 쓸까, 생각해야 하며 문단과 문단과의 연결고리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 가운데 부분에는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에 따라 쓸 것인가를 생각하며 개요를 짜야 한다. 또한 몇 개의 형식 문단으로 짤 것인가를 생각한 후 중심 내용을 간추려 중심 문장을 메모해 주는 것이 좋다. 형식문단은 내용이 같은 것끼리 묶어 의미 문단을 만든 다음 다시 세 부분으로 묶게 되면 글의 개요가 되는 것이다.

(4) 알맞게 배열하기

개요가 짜여졌으면 그것에 따라 실제로 글을 써야 한다. 설명문의 처음 부분은 대개 설명하려는 것에 대한 길잡이 구실을 하므로 글의 배열은 가운데 부분을 써나갈 때 생각해야 한다.

설명을 할 때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해하는데 혼란이 오게 마련이다. 일정한 순서에 따라 글을 체계적으로 쓰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설명문을 쓰는 목적에도 맞게 쓸 수 있다.

글을 배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 중요한 순서에 따라 쓰기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설명하고 덜 중요한 것을 나중에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그와 반대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나. 위치에 따라 쓰기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 이르는 순서대로 쓸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쓸 수도 있다.

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설명하기

이 방법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순서에 따라 설명할 수도 있고, 반대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며 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설명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다.

(5) 문단 구성하기

글의 중심 내용이 문단의 첫머리에 오는 경우도 있고 문단의 끝 부분에 오는 경우도 있다. 앞의 경우는 두괄식 문장이라고 하고 뒤의 경우를 미괄식 문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설명문에서는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두괄식 문장으로 많이 쓴다. 즉 중심문장(소주제문)을 먼저 쓰고 뒷받침하는 문장을 나중에 쓰는 형태가 곧 두괄식이다.

《예》

씨름에는 왼씨름, 오른씨름, 띠씨름의 세 가지가 있었다. 왼씨름은 살바를 오른쪽 다리에 걸고 오른쪽 어깨를 마주 대고 하는 것이고, 오른 씨름은 살바를 왼쪽 다리에 걸고 고개와 어깨를 왼쪽으로 돌리고 하는 것이다. 띠씨름은 허리에다 띠를 매고 그것을 잡고 하는 씨름이다. 그러나 지금은 왼씨름 하나로 통일되었으며 씨름 경기도 이 왼씨름으로만 하고 있다.

예문에서는 ‘씨름에는 왼씨름, 오른씨름, 띠씨름의 세 가지가 있었다.’가 소주제문으로 중심 문장이 된다. 나머지는 중심문장을 뒷받침해 주는 보조문장이 된다.

설명문의 목적은 정확하게 알리는데 있으므로 자세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하는 문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뒷받침하는 문장이 자세할수록 설명을 이해하기가 쉽다.

(6) 특성에 맞게 글쓰기

설명문은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므로 글쓴이의 의견이나 주장은 피해야 한다.

《예》

① 우리는 하급생을 사랑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하급생은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고 학교 생활도 익숙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는 실수도 나오기 마련이다. ② 이런 실수를 옥박지르기만 한다면 선배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또 학교에 오기도 싫어할 것이다. ③ 따듯이 보살피고 이끌어주는 선배가 있으면 하급생들은 선배를 존경하고 믿고 따를 것이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도 재미를 느낄 것이다.

이 글에서 ①, ②, ③ 문장은 설명문에 적절한 문장이 아니다. 글쓴이의 주장과 의견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이 담긴 글은 논설문이지 설명문이라고 할 수 없다. 설명문을 쓸 때에는 문학적인 멋이나 추상적인 표현은 피하고 쉽고 분명한 낱말을 써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설명문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이 주가 아닌 남에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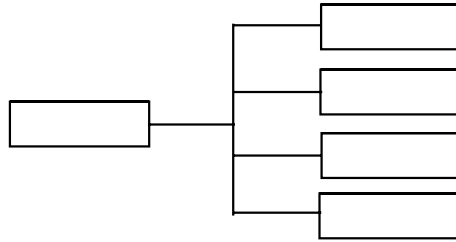
▣ 설명문 쓰기(2)

가. 설명문쓰기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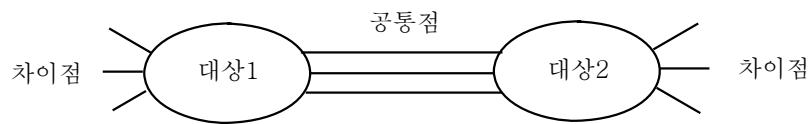
설명문 쓰기의 구조는 비교/대조, 원인-결과, 수집, 문제-해결 구조이므로 이 구조를 가장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식조직자를 구안하였다. 이 네 가지 구조에서 텍스트 읽기와 쓰기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도식조직자를 <그림 1>과 같이 구안하여 활용하였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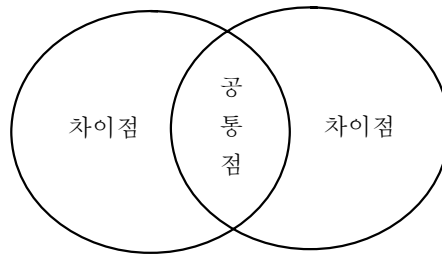
(수집구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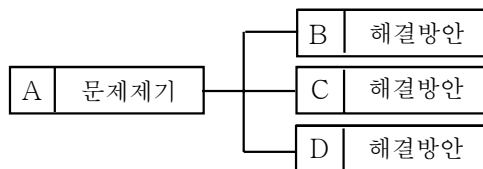
(수집구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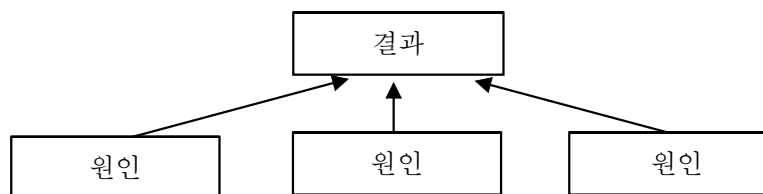
(비교/대조 구조 1)



(비교/대조 구조 2)



(문제해결 구조)



(원인-결과 구조)

나. 개요쓰기 전략

읽기 텍스트에서의 개요쓰기는 글 전체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줄이는 것이다. 글의 구조가 쉽게 드러나고 주제와 사고 단위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줄이면 개요가 된다. 읽기 텍스트에서의 개요쓰기는 요약하기와 맥이 통한다. 각 단락별로 개요를 쓴 다음 그것을 이어서 연결하면 요약이 되기 때문이다.

개요쓰기 능력은 글 구조 지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주어진 글을 읽고, 그 글의 중심 생각을 이해하여 요약하여 쓰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상위 구조를 주축으로 글의 내용 구조를 형성한다. 학생들은 최상위 구조를 확인하여 개요를 쓰는 학습을 통해 읽기와 쓰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개요쓰기는 학생들이 읽기 텍스트의 조직적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글쓰기에 그 이해한 바를 적용하여 구조가 분명한 글을 쓰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습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글쓰기에서의 개요쓰기는 필자가 쓰고자 하는 글의 구성 계획이다. 개요는 글 전체의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글쓰기를 위한 개요 작성의 단계는 제재를 선택하고 주제를 진술한 다음 종속제재를 선택하고 종속 주제를 진술한다. 종속 주제의 배열 순서를 결정한 다음 개요를 작성한다. 글을 쓸 때 주제가 명료하게 전달되려면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개요를 쓸 때 주제를 밀반침할 종속 주제를 선택하고 주제와 종속 주제 사이에 통일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종속 주제들을 어떤 순서로 배열해야 일관성이 갖추어질지를 바르게 판단해야 한다(이대규, 1994:39).

개요를 작성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글의 전체 구조는 물론이거니와 독자를 고려해야 하고 글의 전체 분량, 조직 방식(나열식, 비교·대조 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조직 방식과 관련해서 주어진 쓰기 과제의 특성이나 독자 등을 생각하여 어떤 방식으로 조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개요는 글을 구성하는데 직접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쓰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재승, 1998:386-387).

박덕유(1998:60)는 쓰기에서의 개요 작성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글의 설계도 구실을 한다
- ②글을 써 가면서 일어나기 쉬운 혼란과 주제에서 벗어나는 일을 막아준다
- ③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게 하고 쓸데없는 중복을 피하게 하여 글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게 한다
- ④작성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조직력과 사고력이 길러진다
- ⑤요점을 정리하고 대의(大意)를 파악하거나 회상하는데 도움을 준다.

개요의 종류에는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가 있다(박덕유, 1998). 화제 개요는 줄거리의 각 항목을 핵심적인 어구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작성하기는 쉬우나 구체적 내용파악이 어렵다. 화제 개요의 예는 다음과 같다.

- I. 서론 : 인스턴트 식품의 범람
- II. 본론
 - 1. 인스턴트 식품의 장점
 - (1) 구입의 편리성
 - (2) 조리의 간편성
 - 2. 인스턴트 식품의 단점
 - (1) 비싼 가격
 - (2) 낮은 영양가
- III. 결론 : 인스턴트 식품의 이용에 관한 자신의 태도

문장 개요는 줄거리의 각 항목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쉬우나 작성하기가 어렵다. 문장 개요의 예는 다음과 같다.

- I. 서론 : 우리들 주위에는 인스턴트 식품이 범람하고 있다.
- II. 본론
 - 1. 인스턴트 식품은 구입이 편리하고 조리가 간편하다.
 - 2. 인스턴트 식품은 값이 비싸고 영양가도 낮다.
- III. 결론 : 비록 구입과 조리가 편하다 하더라도, 인스턴트 식품의 이용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개요를 작성할 때 화제 개요일 경우에 세부 항목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문장 개요가 들어간다면 안 되고 문장 개요일 경우에는 화제 개요 방식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본 연구에서의 개요쓰기는 텍스트의 읽기와 쓰기에서 모두 활용되는 것으로서 설명적 텍스트의 각 구조를 글로 진술한 것을 나타낸다. 읽기 텍스트에서 개요쓰기를 통해 구조를 습득하고 그것을 글쓰기에 전이시켜 내용들을 조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제 개요와 문장 개요를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였다.

○텍스트 구조 학습

문어와 오징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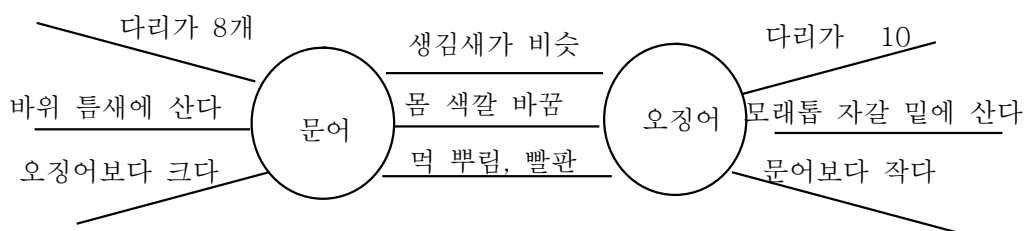
문어와 오징어는 매우 비슷하다. 생김새와 몸의 색깔을 바꾸는 것, 적의 기습을 받으면 먹을 뿌리고 달아나는 것 등이 비슷하다. 또 문어와 오징어의 발에는 무엇이든 달라붙는 빨판이 있다.

문어와 오징어는 차이점도 있다. 문어는 다리가 8개이고 오징어는 10개이다. 문어는 바위 틈새에 살고 오징어는 모래톱 자갈 밑에서 산다. 문어가 오징어보다 훨씬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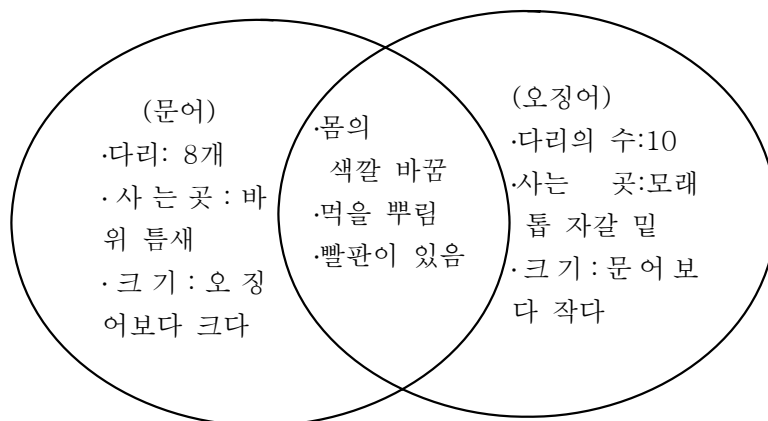
- ▶ 비교 / 대조의 대상 찾기(문어와 오징어)
- ▶ 비교 / 대조의 단서어¹⁾ 찾기(매우 비슷하다. 차이점도 있다. ~ 보다)
- ▶ 비교 / 대조의 기준 찾기
 - 비슷한 점 : 생김새, 특징, 빨판
 - 차이점 : 다리의 수, 사는 곳, 크기

▶ 도식조직자 만들기

【도식1】



【도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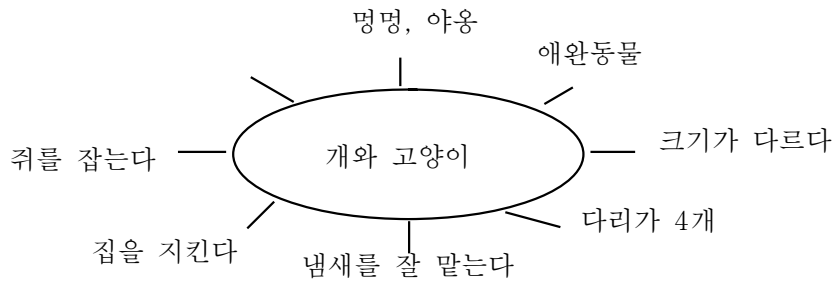


1) 단서어는 설명적 텍스트의 단락에서 사고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Mcgee, 1989). 본고에서 도식조직자 전략 집단과 개요쓰기 전략 집단 모두에게 단서어를 학습시켜 구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전개 : 개와 고양이에 대하여 비교/대조 구조로 쓰기

○생각 꺼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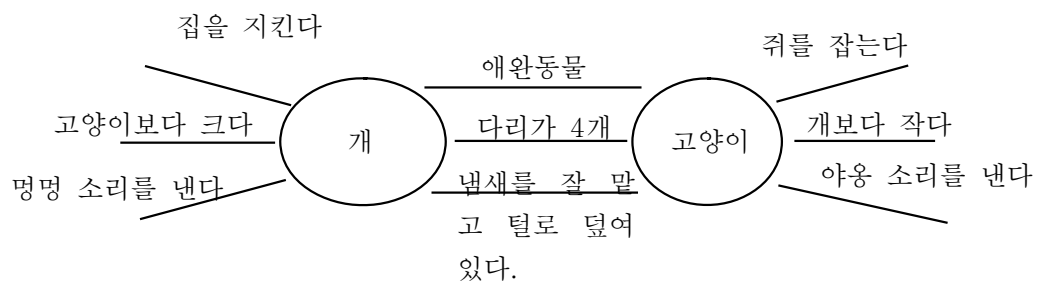
▶브레인스토밍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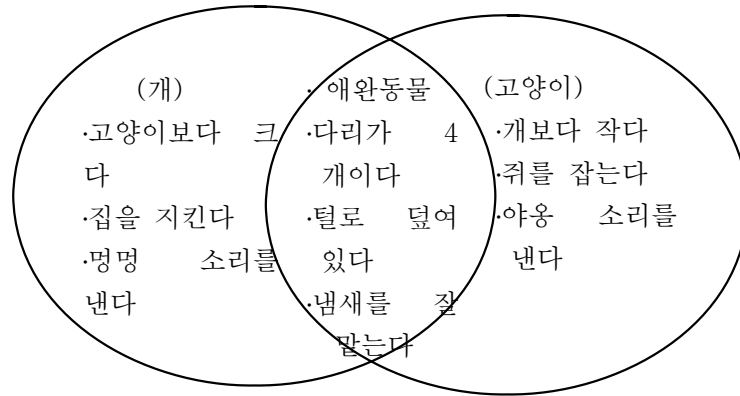
○ 생각 묶기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도식조직자 만들기

【도식 1】



【도식 2】



○ 초고쓰기

개와 고양이

개와 고양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애완동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다리가 4개이고 털로 덮여 있으며 냄새를 매우 잘 맡습니다.

그러나 개와 고양이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크기에 있어 개가 고양이보다 큽니다. 개는 집을 잘 지키고 고양이는 귀를 잘 잡습니다. 개는 ‘멍멍’소리를 내고 고양이는 ‘야옹’소리를 냅니다.

개와 고양이

개와 고양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애완동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다리가 4개이고 털로 덮여 있으며 냄새를 매우 잘 맡습니다.

그러나 개와 고양이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개는 고양이보다 크고 집을 잘 지키고 ‘멍멍’소리를 냅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개보다 작고 귀를 잘 잡고 ‘야옹’소리를 냅니다.